불기 2570년 연등회

휴머노이드 · AI 로봇들이 선두로 나섰던 올해 연등회 연등행렬은 AI시대에 대응하는 불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로봇과 인간이 만든 10만 연등행렬과 연등회의 면면을 화보에 담았다. 사진=특별취재팀



5월 16일 진행된 연등회 연등행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및 봉행위원단이 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조계종

10만 연등 장엄한 종로…인간·로봇이 걷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청 련 암
연화유치원
주 지 무 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335
전화 031)255-1020



대한불교조계종
호 국 사
주 지 동 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15
전화 061)383-6200



대한불교조계종
호남 최초 꽃무릇 자연장
용 천 사
주 지 혜 용
전남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길 209
전화 061)322-1822
분양사무소 061)-322-1445



진도 약 사 사
작약꽃 축제
5월 9일~24일
주 지 체 효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죽엽길5
전화 061)544-3690



연등회 역대급 인파 세계인을 사로잡다

5월 16일 서울 흥인지문부터 조계사까지 이어진 불기 2570년 연등회 연등행렬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 외국인 관광객까지 50만명이라는 역대급 인파가 몰리며 글로벌 축제 열기를 더했다. 행렬이 시작되기 전부터 도로 양옆은 관람객들로 가득 찼고, 시민들은 사진을 찍으며 화려한 연등행렬을 만끽했다.

남편과 함께 처음 연등회를 찾은 이은숙(60) 씨는 "최근 광화문을 지나가다 우연히 점등식을 봤는데, 연등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이곳까지 오게 됐다"며 "많은 사람이 다양한 등을 들고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도심을 수놓은 연등 불빛은 외국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안겼다. 연등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전통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폴란드에서 온 마테우스(42) 씨 가족은 연등회를 보기 위해 두 달 전부터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 마테우스 씨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연등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가족과 직접 보고 싶었다"며 "현장에 와보니 안전 관리나 관람 환경 등이 잘 준비돼 있어 축제를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내 마그다 씨도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을 위해 의자 같은 편의시설까지 마련돼 있어 관람객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친구가 보여준 연등회 사진에 매료돼 프랑스에서 온 포레(19) 씨도 "화려한 불빛이 특히 아름답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어 기쁘다"며 "연등 모양도 예쁘고 참가자들의 의상도 독특해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오길 정말 잘했다"고 웃어 보였다. 이현희 수습기자